

南北韓 高等教育體制에 관한

比較적 考察

손계림 장춘호

序

韓半島의 조선민족은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그들을 정반대 방향으로 몰고 갔다. 해방 이후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토대로 국가를 건설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리고 남북한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국가형태와 이념 그리고 사회체제는 남북한간에 이질적인 교육체계를 초래하였다. 목전에 이르러 한반도에서 국가의 연합을 실현할 가능성이 늘어가고 있다. 분단 55년만에 남북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남북한은 서로의 다가서기에 급속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의 진정한 통합을 이룩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남북한은 반세기 동안 서로 이질적인 체제에서 생존해 왔으므로 서로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발양하기 위하여서는 대방을 이해하는 점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남북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교육은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이야말로 인간의 내면적인 통일을 성취하는 중요한 과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교육체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특히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고등교육은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최적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의 산업화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 고등교육이 국가·사회발전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고등교육체제에 대한 비교와 분석은 남북한 교육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의도에 따라 남북한의 교육제도 중에서 고등교육을 연구범위로 삼았다. 남북한 고등교육체제를 비교·분석함에 있어서는 종적인 역사 연구법과 횡적인 비교·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남북한 고등교육의 변천과정, 고등교육체제의 현황 및 개혁동향을 다룸으로써 남북한 고등교육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어 이를 토대로 남북한 고등교육체제를 비교·분석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밝히었다.

광복 당시 한반도에는 남한에 집중된 19개의 고등교육기관에 7,81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하나 뿐인 종합대학—한성제국대학의 800여명 재학생 중 조선인 학생은 330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제의 교육기회 제한과 차별정책으로 인해 교육주권을 상실당한 국가적 특징을 여실히 설명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남북한은 모두 국가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고등교육의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고등교육의 급속한 양적·질적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 남한의 고등교육은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문연구와 인류가 쌓아 온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한 창조적 활동을 이념과 목적으로 삼고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쳐 20세기 80년대에 이르러 「고등교육의 대중화시대」에 들어섰으며, 1990년대 이후 국제경쟁력 확대의 국가목표에 의해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광복 50여년래 북한의 고등교육도 조선국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부강한 민주조국건설을 위하여 헌신할 민족간부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거쳐 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끝내 180여만 명의 지식분자대군을 마련하였다. 20세기 90년대 이후, 북한교육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서 체제유지와 경제재건을 목표로 삼고 고등교육의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남북한 고등교육의 변천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한은 경제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북한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으나 해방이후 남북한은 모두 고등교육을 국가의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각자 사회의 특성에 따라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체제를 발전시켜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각자의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남북한 고등교육의 변천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반세기동안의 짧은 연륜을 갖고 있는 남북한이 국가건설과정에서 고등교육을 중요시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목전 북한에서는 11년제 의무교육체제를 확립하고 고등의무교육의 보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상 고등학교 단계까지 보급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남한은 일제 시대의 고등교육체제를 개편하여 미국식 고등교육체제를 갖추고 국가의 빈곤으로 하여 사립학교에 의존하였으며, 북한은 국가의 강력한 권력을 이용하여 식민지 사립교육을 청산하고 국가의 단일한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하였다. 또한 고등교육의 발전과정에서 남한은 양적인 급속한 팽창을 거듭하고 있으며 질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반면에 북한 고등교육은 80년대 이후 양적 발전보다 질적인 제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90년에 들어 양적 발전은 기본상 정체상태에 있다 하겠다.

II

반세기동안의 발전을 거쳐 남북한은 각자 사회의 특성에 따라 실정에 맞는 일반고등교육으로부터 성인고등교육에 이르는 다양한 고등교육체제를 확립하였다.

고등교육의 유형별로 보면, 남한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 교원대학, 산업대학, 통신대학, 특수대학 등이 있다. 전문대학은 2-3년제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4년제 대학은 4-6년제의 일반대학으로서 제도와 역할 면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중심이다. 대학원은 4년제 대학 교육목적의 기초 위에서 학생들의 학술연구 지도능력과 독창능력의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교원대학은 초등학교 및 중등중학교의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이며, 산업대학과 통신대학은 일종의 평생교육기관이다. 이상의 대학 외 남한에는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세무대학 등 특수대학이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기관은 「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대학, 중심대학, 단과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의 일반 고등교육기관과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 농장대학, 어장대학, 전일제대학의 통신 및 야간학부, 텔레비존방송대학, 간부재교육기관 등의 성인고등교육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합대학은 국가의 중점 「중심대학」으로서 각 학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단과대학은 4년제로서 대학의 대부분을 점하며 각 분야의 기술자, 전문가 급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고등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서 고등전업기술교육을 통하여 「현장 기술자」를 양성한다.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는 11년제 의무교육을 마친 후 사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인원을 양성한다. 20세기 80년대 이후에 창설된 농장대학과 어장대학은 중등중학교 졸업의 농장원과 어민을 대상으로 설립한 전문대학이다. 이외 북한에는 이미 제도화된 김일성고급당학교, 인민경제대학, 공산대학과 군당학교 등의 간부재교육기관이 있다.

남북한의 고등교육은 그 기능 면에서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양성과 전문인력 배양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즉 남한의 4년제 대학들과 북한의 종합대학, 단과대학들은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고급전문인의 양성을 주요목적으로 하며, 남한의 전문대학, 산업대학, 방송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북한의 공업대학, 전문학교 등 고등교육기관들은 각 산업분야의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대중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고등교육행정체제는 남북한 모두 중앙집권형이다. 남한은 대통령책임제하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결합한 체제를 형성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위원회 및 군교육청이 구체적인 교육행정을 집행한다. 북한은 완벽한 중앙집권주의적 원칙하에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각 시군행정위원회가 교육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남한은 제 1 공화국시기부터 국립, 공립, 사립의 3자 공존의 국면을 형성하였으며 오늘까지 연속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해방초기 국가의 강력한 권력을 이용하여 식민지 사립교육을 청산하였으며 국가의 단일한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선발제도 면에서 남북한 모두 대학의 문이 아주 좁다. 남한은 학생의 능력을 위주로 선택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인 계층차이로 자율성은 많은 국한성을 띠고 있다. 북한은 대학의 선발·졸업·배치를 국가의 통일적인 관리하에 두고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하며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또한 남한의 신입생 중 대부분이 직통생이지만 북한은 직통생 외 제대군인과 직장근무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남한의 고등교육과정은 기초교양과정, 전업과정과 자유선택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과정의 구성과 비율은 원칙상에서 각 대학이 자주적으로 정한다. 그러나 기초교양과정은 전체과정의 30%이상을 점해야 한다. 북한의 대학교육과정은 일반기초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과정으로 나뉘며 공통과목으로 사상정치과목과 외국어를 설치하였다. 한편 교수방법상에서는 이론과 실전을 결부시키는 원칙 하에 수업시간 중에 전 교과에 걸쳐 토론이 별도로 배정되고 실험과 실습이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중요시하는 교수방법은 깨우쳐 주는 방법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0 조에서는 "교육일군은 학생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도록 교수교양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함.) 또한 교수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배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III

남북한의 고등교육은 반세기동안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고등교육은 그 발전과정에서 양적인 확장만을 추구하여 각 학교의 특색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학비와 사립대학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정구조가 취약하며, 국가급 수준에서의 공제수단이 결핍하여 대학의 과학연구와 교수수준 방면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북한의 고등교육도 학생선발에서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을 강조하여 기회균등을 제약하였으며, 당과 정부의 철저한 지도하에 자율성이 제약되었으며, 교육여건이 낙후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 세기 90 년대 이후 남북한 정부는 고등교육의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 세기 90 년대 이후, 남한은 대학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중심과제로 삼고 고등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1995년 5월 남한 교육부는 5.31 교육개혁안을 통해 대학교육의 자율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학운영이 정부주도형으로부터 대학자치형으로의 획기적인 과도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남한정부의 대학 자주화조치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로 개괄할 수 있다. 첫째로는 각 대학에서 학교운영의 취지와 학과설치의 특성에 의하여 다양한 학기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교육여건을 구비한 각 대학에서 학생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도 최근 남한 고등교육 개혁의 중심과제이다. 반세기동안 남한의 고등교육기관은 상호간의 모방으로 인해 각 대학간의 특성 있는 차이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획일화되어 있었다. 이에 남한 교육부는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정책을 제정하여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산업중심대학」 등 과학연구와 산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 있는 대학들을 집중·지원키로 하였다. 한편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의해 다양하게 대학설립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학교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1996 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한 대학설립준칙안에 의하면 전문대학, 개방대학, 4 년제 대학 등은 모두 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설립목적과 특성은 법률상 구분한다. (한국대학연감 1996 연호 39 페이지)

20 세기 90 년대 이후, 북한에서도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서 체제유지와 경제재건을 목표로 삼고 고등교육의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해 왔다. 1985 년 이후 전반적 11 년제 의무교육의 완전실현과 함께 북한정부는 「전 사회의 인테리화」라는 구호를 제시하였으며 「전반적 고등교육의무제를 실현하자」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로서 북한의 고등교육은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섰다. 북한은 전 인민의 인테리화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적 담보를 위하여 국가의 중점투자로 「중심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유형의 대학들은 국가의 중점적인 투자로 학생래원의 질과 교원의 자질을 제고하며 대학교원들이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학위획득자로 되도록 요구한다. 또한 1996 년 10 월 김정일 북한지도자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 돌을 기념하여 보낸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서한에서는 대학선발과 배치에서 실력본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였으며, 1999 년의 「조선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48 조에서도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교육이 보급되고 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북한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김정일의 제창과 구체적인 지도아래 學前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수재교육체계를 확립하였다. 대학수재반제도는 북한 수재교육의 주요한 형식중의 하나이다. 중앙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재반을 설치하고 있으며 학생래원은 기본상 제 1 고등중학교에서 온다. 수재반은 전문적인 교수계획과 교재를 갖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우수한 교원을 배치하여 수업하게 한다. 또한 수업시간과 실습, 실험 등 학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외 젊은 학사 박사제도, 학원제, 특장반 학교제 등도 수재교육체계에 포괄된다. 목전의 조건하에서 수재교육의 발전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유효한 수단이며 북한 교육발전의 주요한 추세중의 하나이다.

IV

해방 이후 반세기동안 남한의 고등교육 학생 수는 7819 명에서 2,771,053 명으로 급성장 하였으며 북한의 고등교육 학생 수도 빈터에서 영으로 시작하여 약 41.3 만 명으로 장성되었다. 이는 남북한 모두 고등교육을 고도로 중요시함을 말해 주며 규모의 확대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은 각자의 독자적인 특성을 띠고 있으며 장단점을 갖고 있다.

1) 고등교육의 변천과정에서, 북한의 고등교육은 부동한 시기의 전략중점은 부동하였지만 중앙집권적인 관리하에서 제도상의 큰 변화가 없이 발전하여 왔다. 비록 실제조작효과는 이상적이 못되나 엄중한 편차가 없이 발전하여 왔다. 반면에 남한의 고등교육은 그 발전과정에서 양적 발전과 질적 제고의 반차(反差)가 명확하며 양과 질의 혼미를 거듭하면서 발전하여 왔다고 하겠다. 또한 해방이후 남북한 고등교육의 대 발전은 전통적 고등교육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정책을 제정하였으며 전문교육을 고등교육의 범주에 두었으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국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부단한 수요를 만족시켰다.

2) 고등교육의 행정체제 면에서 보면, 북한은 당과 정부의 중앙집권적 관할 하에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전문성이 미흡하나 중앙집권체제로 매우 효율적이다. 북한의 고등교육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계획을 제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며 일체의 비용은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한다. 반면에 남한은 중앙정부의 관할과 통제를 받지만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리하여 남한의 교육행정은 전문성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으나 자율의 추세에 따라 효율성이 극히 낮다. 또한 남한은 학교제도가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의 자립정도가 약하며 사립대학과 학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재정구조가 취약하며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담보하기 어렵다.

3)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담보 면에서 보면 남한은 국가급 수준에서의 교육의 질에 대한 공제수단이 결핍하여 과학연구와 교수수준방면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대학원 교육의 질을 하강시켰으며 고등교육기관과 학생수의 급속한 확대에 따르는 교육여건의 마련이 문제로 되고 있다. 목전 남한 정부에서는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발전수준의 낙후로 인해 대학의 규모가 보편적으로 작으며 소수의 종합대학 외 교육여건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4) 대학의 경쟁력 면에서 보면 남북한 모두 자율성적인 경쟁체제가 건전하지 못하다. 남한의 고등교육의 정보는 기본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관과 사립기관에서 제공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시장방면에 대한 상응한 대책이 부족하며 국제시장에 대하여서도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일관한 폐쇄적인 정책과 중앙집권적 관할 하에 자율성적 경쟁력을 논하기 어렵다.

5) 교육기회의 균등보장 면에서 보면, 북한의 고등교육체제는 모든 사회성원의 학습수요의 만족에 있어서 전민교육의 높은 차원에서 체현되었다. 북한은 단일한 체제하에서 11년제 의무교육을 완수한 모든 인에게 그들이 사회의

어느 부문에 종사하든 지를 막론하고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북한은 학생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상성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보장 면에서 개방성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남한은 능력주의에 토대를 둔 「사회적 선별」이라는 이념적 기초 하에 학생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으나 수익자부담의 원칙 하에 사회경제적 계층의 차이가 기회의 균등을 엄중히 제약하고 있다.

V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한 고등교육의 변천과정, 교육개혁 등은 실질적으로 모두 고등교육의 양적 발전과 질적 제고의 문제를 둘러 벌어졌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우의 비교와 분석에 기초하여 남북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남북한은 이데올로기적 영향에서 벗어나 민족이해교육을 강화하며 민족의 동질성을 발양하고 이질성을 극복하며 민족의 주체성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각자 고등교육기관의 상호래방과 접촉을 늘이여 상호이해를 증진하며 학교 설치운영의 경험과 대학간의 문화예술교류를 강화하여 교육제도상의 접근을 시도한다. 또한 최근에 상호간의 유학생 파견의 목적을 실현하며 민족공업을 번영시킬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남북한의 고등교육은 유효한 학생래원의 확대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 선발제도개혁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능력중심의 선발을 원칙으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방향을 탐색해야 하겠다. 북한은 학생 선발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자율성원칙에 의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남한은 학생선발과 졸업과정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체제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남북한의 고등교육은 학문을 위주로 하는 과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고급전문인의 양성을 주요목적으로 하며 실용성 가치와 산업성요구가 높은 교육내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회에 대한 학교의 적응능력을 제고하여야 하겠다. 남한은 대학의 학문연구에서 실제 산업현장과 긴밀히 연결하여야 하며 북한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각종 새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이를 학문연구와 산업현장에 적용하여야 하겠다.

넷째로, 남북한의 고등교육은 사회의 고등교육에 대한 다양화 수요에 적응하여 공급자중심의 학교운영에서 수요자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다그쳐야 하며 경쟁체제의 수요에 입각하여 각 대학의 특성화, 장기발전계획과 생존전략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또한 남북한 고등교육은 사회적 수요에 의해 수업연한, 학교형태 등을 더욱 다양하게 조직·운영하며 각 유형 대학들의 부동한 목표와 부동한 구역의 특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끝으로, 남북한의 고등교육은 경제형세로 인한 재정위기를 막으며 학교경영개혁과 구조조절을 단행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남한은 국가급 수준의 교육의 질에 대한 공제수단을 늘이며 교육여건을 우수한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북한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며 시급히 폐쇄적인 정책을 타파하고 개방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대학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하며 건전한 자율성적 경쟁체제를 건립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심상수, 「조선교육사 (1)」, 평양:교육도서출판사, 1983.
- 2)박철수, 「조선교육사 (2)」, 평양:교육도서출판사, 1985.
- 3)김창호, 「조선교육사 (3)」,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0.
- 4)강근조, 「조선교육사 (4)」,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1.
- 5)리영환, 「조선교육사 (5) (6)」,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93.
- 6)조성일 김영출 저, 「한국교육행정사」, 서울:集文堂, 1996.
- 7)김종철, 「한국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 재판,1990.
- 8)孫啓林, 「戰後韓國教育研究」, 江西教育出版社, 1995.
- 9)孫啓林, 「"선군정치"와 "수재-엘리트"교육체계」, 「북한학연구」 창간호(2000,8).
- 10)남진우 이영복 등, 「사회주의교육학」, 교육도서출판사, 1991 년.
- 11)孫啓林, "朝鮮高等教育의 發展과 改革, 外國教育研究", 1994 年 第 5 期.
- 12)한만길 손계림, "고등교육단계의 성인교육", 대학교육, 제 87 호,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7.